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기공식 연설

존경하는 김혁규 지사를 비롯한 경남도민과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 영상으로 보았듯이 바다 위에 다리를 놓고 바다 밑으로 길을 내는 정말 엄청난 사업입니다. 여러분의 오랜 숙원인 부산~거제간 연결도로의 기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산·경남 지역의 발전은 물론 우리 경제와 국민생활이 향상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거제도에서 이곳까지 2시간 넘게 걸리던 길이 단 50분으로 단축됩니다. 연간 물류비용 절감만도 4천억원이 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건설중인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와 대구~김해간 고속도로를 연결하면서 동남권 산업벨트의 대동맥 역할을 하게 됩니다. 관광산업 발전에도 획기적인 기여를 합니다. 국내 최초의 해저 터널과 아름다운 사장교가 어우러진 장장 8.2km의 해양교량은 그 자체로서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부산~거제~여수~목포를 잇는 남해안 관광벨트를 형성하면서 국내외 수많은 관광객들을 불러들일 것

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2010년까지 약 4조원의 생산유발과 20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아울러 이 지역의 항만과 녹산·신호공단, 그리고 거제 조선단지가 연계되어 국가발전의 핵심 클러스터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부산과 거제, 더 나아가 부산과 경남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면서 상호 유기적인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는 '화합과 번영의 가교'가 놓여지는 것입니다. 경남과 부산시민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는 오늘 이 자리가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고맙고 뜻깊은 일입니까? 이 거대한 사업을 성사시킨 경상남도과 부산시, 그리고 민간 참여기업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주민과 공사 관계자 여러분이 서로 협력해서 후세에 길이 남을 훌륭한 길고 튼튼한 길을 만들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와 정부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과 경남도민 여러분,

지난 1970년대부터 '서울은 만원' 이라고 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이제 지방으로부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지난 40년 가까이 지속된 '중앙집권-집중전략' 을 '지방분권-분산전략' 으로 전환할 때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정책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과감한 지방분권과 재원이양으로 지방의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부산·경남 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16개 시·도가 독자적인 산업경쟁력을 갖춘 역동적인 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 이 조속히 통과되어서 국토균형발전과 지방화가 힘차게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2000년 12월,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신항만 민자사업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0개 선석을 추가 조성하는 공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06년 초에 3개 선석을 앞당겨 개장해서 동북아 지역의 물동량 증가에 적극 대처하고, 동북아 중심항만으로서의 지위를 굳혀 나갈 것입니다. 또한 부산·진해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계기로 세계 우수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서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물류와 생산거점으로 육성해 가겠습니다. 부산·경남 지역이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이끄는 우리 경제의 견인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과 부산시민 여러분,

이 지역의 미래는 창창합니다. 동북아 지역이 세계 경제의 중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동북아의 관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부산·경남 지역이 있습니다. 부산·경남은 대한민국의 동북아 경제중심 계획을 선도해 갈 변영의 중심무대입니다.

거가대교 건설은 이 지역의 무한한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부산·경남은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동북아의 중심거점으로 더 큰 도약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희망찬 사업에 다 함께 동참합니다. 그리하여 부산과 경남, 그리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 갑시다.

다시 한번 오늘의 기공을 축하드리며 경남도민과 부산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